

여수세계박람회, ‘자연과 공존’ 섬의 가치 세계에 알린다



9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2026여수세계박람회 도민보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도민보고회 개최...관람객 유치·교통·숙박·음식 등 준비상황 등 보고
올 9월 5일~11월 4일 개최...해양생태관·미래관 등 9개 테마존 꾸며

올해 여수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박람회'는 기후위기 시대, 바다와 인간의 상생 방안을 구현해내면서 섬의 무한한 가치를 알리는 세계 최초의 섬 축제로 치러진다. 특히 국내외의 300만명이 넘는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전남지역 섬의 생물 다양성과 독특한 섬 문화를 소개하고 섬의 미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마련,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계 섬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섬 테마존의 경우 전 구역이 포토존 형태로 꾸며진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9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2026 여수세계박람회 도민보고회를 열고 관람객 유치 목표, 손님맞이를 위한 교통·숙박·음식 대책 등 박람회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원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행사장인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부행사장인 개도·금오도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300만명(내국인 291만명)이 찾는 세계 섬박람회를 치르

겠다는 계획이다.

주행사장은 높이 20m에 이르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주제관과 섬해양생태관·섬미래관·섬공동관·섬문화관·섬놀이터·섬식당·마켓관 등 8개의 전시관과 섬 테마존으로 꾸며진다.

주제관의 경우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 세계 섬의 분포·상황, 기후 변화, 섬의 생활상과 섬 문화관광자원 등을 담았고 섬의 미래를 형상화한 생명의 나무를 연출해냈다.

섬 해양생태관은 오염된 섬과 회복, 치유와 보존의 과정을 스토리 라인으로 전시 연출로 꾸몄고 섬미래관은 섬의 가치를 탐험하는 형태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했다.

섬 공동관에 꾸며지는 섬 테마존에는 여수의 45개 유인도와 독도·완도·가파도 등 한국의 섬들, 이스타섬·마다가스카르·몰디브 등 세계의 섬을 연결해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여수 섬들을 잇는 '일레븐브릿지'는 테마존에서 여수 섬과 한국 섬, 세계 섬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위는 또 '섬 방문의 해' 행사, 수학여행·체험학습 유치, 코레일과 연계한 섬 관광상품, 여수 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국제크루즈 유치 등을

통해 3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남도만 하더라도 67개의 행사를 섬박람회와 개최하는 등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전격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12개 주차장(8172면)을 확보하고 주행사장과 여수박람회장을 오가는 해상 교통편으로 요트를 운항하는 한편, 섬 요트 투어를 활성화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82개소의 숙박시설과 5100개의 일반음식점도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위생 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참여도 확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6개 대륙 28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여수섬박람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륙별로는 ▲유럽 4개국(프랑스·그리스·에스토니아·포르투갈) ▲아시아 7개국(필리핀·일본·동티모르·베트남·중국·에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아메리카 3개국(페루·쿠바·에콰도르) ▲오세아니아 6개국(팔라우·피지·마셜제도·솔로몬제도·통가·키리바시) ▲아프리카 4개국(세네갈·마다가스카르·케냐·모잠비크) 등 24개국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박람회가 섬이 지닌 가치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면서 섬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직능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현장 공청회를 열고 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5개 자치구 구청장 및 역대 시의회 의장단과도 17차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36회에 달하는 '릴레이 소통'을 통해 바닥 마음을 훑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광주·전남 상생 토크'와 '권역별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행정 중심이 아닌 사·도민이 주도하는 미래 설계가 이뤄지도록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올 공공배달앱 예산 절반 '뚝'

국비 지원 미확보·기탁금 감소에 감축...서비스 위축 우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광주공공배달앱의 올해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비스 위축이 우려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6년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확정된 총사업비는 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11억 3500만원(국비·시비·기탁금 포함)과 비교해 6억 2000만원(54%) 줄었다. 국비 지원 미확보와 기탁금 감소 등에 따른 결과다.

전체 예산 중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액은 지난해 6억 8000만원에서 올해 3억 5400만원으로 줄었다.

주말 할인쿠폰은 건당 3000~4000원에서 2000원으로, 특정일 할인쿠폰은 4000~5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 배달료 지원 예산 역시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7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시는 예산 부족에 따른 홍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별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26명 규모의 '골목상권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운영사인 신한은행(맹거요)과 슈퍼커넥트(위메프요)의 자체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한다. 신한은행은 첫 주문 및 재주문 고객에게 최대 1만원의 쿠폰을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신한은행 정산계좌를 이용할 경우 배달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

위메프요 역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업해 최

대 2만원의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지속 민간 앱과의 차별화 요소인 지역 밀착형 서비스도 이어진다.

광주상생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상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배달앱 내 입점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무등·월곡·남광주·남광주헤프는·봉선시장 등 5개 시장을 대상으로 계속 운영된다.

시는 장보기 서비스 이용 시 배달비 2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중단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이라는 본연의 가치가 크다"며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배달앱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을 줬다. 2021년 2월 출시 당시 1240개에 불과했던 가맹점은 2025년 말 기준 1만 7965개로 14배 이상 늘었다. 시는 지난해 주문 1건당 평균 2100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발생해 가맹점주들이 총 27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분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도의회, 농지임대수탁사업 전면 개편 촉구안 채택

박형대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박형대(진보·장흥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박 의원은 "1996년 도입된 농지임대수탁 제도가 농지의 공공 관리 강화와 임대차 질서 확립을 목표로 했지만, 농어촌공사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중간거래 업체'로 전락했다"며 "농민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대료 선지급 구조와 수수료 공제 방식 역시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농지임대수탁사업 폐지 및 개인 간 계약 허용과 신고제 전환, 비농민 농지 소유 제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공공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중심으로 재편, 농지 관리 비용의 국가 부담 등의 촉구 사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첨단시대에도 농민이 농지 서류 하나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부 수수료 폐지 조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고,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임대차 계약은 개인 간 계약을 허용하되 공공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행정통합 각계 목소리 '하나로'

오늘 시청서 종합 공청회...36회 걸친 소통 경과 시민 공유

광주시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공청회를 개최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통합'을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5개 자치구 권역별, 직능별로 나누어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간의 추진 경과를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지역 경제와 문화, 복지, 주민자치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읍 가쁜 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직능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현장 공청회를 열고 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5개 자치구 구청장 및 역대 시의회 의장단과도 17차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36회에 달하는 '릴레이 소통'을 통해 바닥 마음을 훑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광주·전남 상생 토크'와 '권역별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행정 중심이 아닌 사·도민이 주도하는 미래 설계가 이뤄지도록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